

벤투호 K리거 ‘플랜B’ 경쟁력 확인

새해 첫 경기 공격 폭발... 아이슬란드 평가전 5-1 대승
조규성·백승호·김진규·엄지성 등 영건들 존재감 ‘뽐뽐’

전력의 핵심인 ‘유리과’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카타르 월드컵의 해인 2022년 첫 A매치에 나선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쟁력을 뽐낸 K리거들의 활약 속에 다양한 옵션을 확인하는 소독을 남겼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15일 터키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서 5-1로 대승했다.

대표팀의 새해 첫 경기인 이날 평가전은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

리아와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원정 2연전을 앞두고 마련된 점검 무대다.

부상 중인 손흥민과 황희찬을 이번 최종예선에선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히 공격 쪽에선 이어질 경기들에 대비해 ‘플랜 B’를 점검하는 의미도 컸는데,이 부분에선 확실한 성과가 있었다.

조규성(김천)을 최전방에 세우고 2선엔 송민규(전북), 이동경(울산), 권창훈(김천)을, 중원엔 김진

규(부산), 백승호(전북)를 내세운 벤투호는 전반에만 3골을 퍼부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3골 차 리드를 잡은 뒤 안정적인 운영으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지배하는 경기’를 했던 대표팀은 후반 들어선 여러 선수를 교체한 가운데 실점을 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팀은 후반에 강상우(포항), 김건희(수원), 엄지성(광주)을 추가 교체 카드로 활용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고, 후반 28분 김진규, 후반 41분 엄지성이 연이어 A매치 데뷔골 맛을 보며 기분 좋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A매치 데뷔전에 나선 김진규가 공격적인 위치로 주로 올라가 움직이며 1골 1도움을 기록해 중원 경쟁에 불을 붙였고, 백승호와 조규성은 5번째 A매치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등 K리그 무대를 누비는 ‘젊은 피’의 존재감이 특히 빛난 한 판이었다. 2002년생 엄지성도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려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알렸다.

유호 슈팅 11개를 포함해 19개의 슈팅을 퍼부어 5득점으로 연결한 한국은 슈팅 3개(유호슈팅 1개)에 그친 아이슬란드를 압도, 유럽 국가 상대 A매치 최다 골 차(4골) 승리라는 기록도 남겼다.



15일(현지시간) 뮌헨과 쾰른의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반도프스키 46년 만의 대기록 달성

66경기 연속 골·리그 신기록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4·바이에른 뮌헨)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개인 통산 300골을 달성하며 ‘레전드’ 게르트 뮐러의 기록에 또 한발 다가섰다.

레반도프스키는 15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의 라인에너르기 슈타디온에서 열린 쾰른과 2021-2022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완성해 뮌헨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세 골을 몰아친 그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두 번째로 통산 300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앞서 분데스리가에서 300골 이상을 넣은 건 게르트 뮐러(365골)가 유일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1976년 이후 46년 만에 뮐러의 뒤를 이어 이 기록을 썼다.

그는 2020-2021시즌 정규리그에서 41골을 터뜨려 뮐러의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골 기록(40골·1971-1972시즌)을 49년 만에 경신한 바 있다.

또 2021시즌 한 해 동안 리그에서 43골을 폭발해 뮐러가 보유하고 있던 1년 최다 골 기록(42골·1972년)도 49년 만에 깨뜨렸다.

8연패 끝... 41일 만에 감격승

여자배구 IBK, 중국 3-2 제압
김호철 감독 7경기 만에 첫 승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지긋지긋한 8연패를 끊고 41일 만에 승리의 감격을 누렸다.

IBK기업은행의 구원 투수로 지난달 18일 중국생명전 지휘봉을 잡고 V리그에 6년9개월 만에 돌아온 김호철(67) 감독은 6전 전패를 당하다가 7경기 만에 복귀 승리를 올리고 환하게 웃었다.

IBK기업은행은 15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방문 경기에서 중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2(21-25 28-26 25-19 22-25 15-12)로 물리쳤다.

극심한 내홍 사태를 겪고 하위권으로 추락한 IBK기업은행은 2021년 12월 5일 패퍼저축은행을 상대로 시즌 3승째를 거둔 이래 41일 만에 귀중한 승리를 보냈다.

표승주가 28점, 달리 산타나(등록명 산타나)가 23점, 김희진이 22점을 터뜨리며 팀을 수렁에서 건졌다. 특히 2010-2011시즌 데뷔한 표승주는 2011년 3월 12일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작성한 자신의 한 경

기 최다 득점(25점) 기록을 11년 만에 새로 쓰고 연패 탈출의 일등 공신 노릇을 했다.

첫 세트를 내준 IBK기업은행은 10점을 몰아친 새 외국인 선수 산타나를 앞세워 듀스 점전에서 2세트를 안고 3세트로 향했다.

기업은행은 블로킹의 우위(4-1)와 표승주의 폭발적인 득점에 힘입어 중국생명을 5점 이상 앞선 끝에 3세트를 따내며 전세를 뒤집어 승리에 한 발짝 다가섰다.

표승주는 3세트에서만 11점을 몰아치는 괴력을 발산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생명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다.

팀의 기동 공격수 캐서린 벨(등록명 캣벨)이 강타와 연타를 적절하게 섞어 11점을 퍼붓고 경기를 5세트로 몰고 갔다.

IBK기업은행은 5세트 8-6과 10-7에서 터진 김현정, 표승주의 블로킹 2방으로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

이어 표승주와 김희진이 켜 올린 강타를 거꾸 내리꽂아 격차를 5점으로 벌리고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빠져나왔다.

IBK기업은행은 블로킹에서 17-7로 중국생명을 압도했다.



‘형제의 난’ 16일 오후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KGC 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허웅(오른쪽)의 드리블을 허훈이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1위 조코비치 호주오픈 출전 무산

“판결 존중·당국 협력할 것”

호주 정부와 법정 공방에서 저 호주오픈 참가가 무산된 남자 테니스 세계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호주 정부가 자신의 비자를 취소한 것에 불복해 두 번째로 제기한 소송에서 16일 졌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조코비치의 소송을 기각했다.

조코비치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출국과 관련해 당국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조코비치가 머문 멜버른의 구금 시설 앞에서는 세르비아계 호주인, 백인 반대 운동가들이 그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코비치는 “지난 몇 주 동안 나에게 집중된 관심이 불편하다”면서 “이제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테니스와 호주오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료 선수들, 대회 관계자, 스태프, 자원봉사자, 팬들 모두가 이번 호주오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조코비치가 입국한 다음날인 이날 6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그의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조코비치는 이에 불복,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일 승소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14일 이민부장관 직권으로 그의 입국 비자를 다시 취소했고, 조코비치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승진

부이사관 서기관



양제윤



문경종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성리민 일동

승진

사무관



강선호
(사무면장)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진주강씨 정랑공파 입도조 15세 (휘재흥)파 구엄 문중회 회원 일동

취임

우도면장



강선호

우도면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엄리 노인회 회원 일동